

韓國의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에 관한 研究

姜 東 植*

目 次

- I. 序 論
- II. 「삶의 질」指標에 관한 一般的 關心과 接近方法
 - 1. 「삶의 질」問題의 胎動
 - 2. 包括的 測定手段으로서의 「삶의 질」指標의 意義
 - 3. 「삶의 질」指標의 接近方法
- III. 韓國에 있어서의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
 - 1. 「삶의 질」의 論議
 - 2. 「삶의 질」指標의 開發과 體系化
 - 3.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
- IV. 韓國의 「삶의 질」指標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 問題點
 - 2. 改善方案
- V. 結 論

I. 序 論

한 국가의 건전하고 未來指向的인 發展은 국민의 精神的, 물질적 발전이 均衡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GNP상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개개인의 실질적 生活水準이 조화있게 이루어 나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 K. Galbraith는 「經濟成長의 良·否는 얼마나 生産하는 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건널 만 한가 또는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에 의하여 判斷된다」고 주장하면서 現代國家機能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삶의 질」을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

* 학생생활연구소(Student Guidance Center,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J. 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1958.), p. 5.

이와 같이 人間의 관심이 1960年代 중반이후 生活의 量的 측면에서 質的 측면으로 移轉되고 있으며 「삶의 質」(Quality of Life : QOL)의 개선만이 經濟社會政策의 最高目標가 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欲求·價值體系가 변화하면 국가의 經濟社會政策과 企業經營에도 變化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國民主權과 消費者主權(consumer's sovereignty)의 國家體制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종전의 物質的 成長을 가리키는 GNP는 生産高의 尺度는 될지 몰라도 欲求充足 내지 福祉의 尺度는 되지 못한다. 여기에 經濟社會政策 및 企業行動의 指針이 되고 社會發展과 人間적 進보를 나타내는 새로운 指標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삶의 質」 指標(Quality of Life Indicators) 또는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로 불리워지는 것이다.²⁾ 이러한 指標를 통한 「삶의 質」의 향상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지표로서 또는 국가 혹은 地域計劃의 최종 평가 기준으로서 견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論文은 앞과같은 뜻에서 '60년대 중반이후 美國을 위시한 西歐의 産業化된 資本主義國家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후, '70년대 중반이후 韓國에서도 人間生活의 質的 價值(Qualitative value of Life) 즉 「삶의 質」에 대한 研究가 활발해지고 社會개발정책에도 活用되고 있지만 指標의 體系 選定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삶의 質」지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는데 그 目的을 뒀다.

II. 「삶의 質」指標에 관한 一般的 關心과 接近方法

1. 「삶의 質」問題의 胎動

美國을 위시한 西歐의 産業化된 資本主義國家에서 人間生活의 質的 價值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일이며³⁾ 共產主義國家에까지 파급된 것은 '70년대 초이다.⁴⁾ 이와같이 「삶의 質」이라는 용어의 확산은 6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각국이 이룩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物質的 豊요를 얻은 결과 人間의 욕구체계와 가치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데 이는 人間이 人間답게 사는 것을 뜻한다.

2) 이 論文에서 社會指標란 用語대신 「삶의 質」指標란 用語를 쓰고 있는 것은, 엄격히 구분하여 社會指標는 社會開發의 程度를 나타내는 指標이고, 「삶의 質」指標는 個人的 主觀的·心理的 幸福感覺을 나타내는 指標, 즉 前者가 macro한 측면이고, 後者는 micro한 측면이기 때문에 社會發展의 基本目的을 人間의 量的 측면보다는 質的측면에 研究의 目的을 뒀기 때문이다.

3) A. D. Biderman은 1966년에 발표된 그의 論文에서 “社會指標란 社會적으로 重要的 社會의 여러 條件을 제시해 주는 計量的 資料(Quantitative Date)”라고 定義하면서 「삶의 質」이라는 用語를 제시하고 있다. A. D. Biderman, "Social Indicators and Goals", chp. 2, R. A. Bauer(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p. 69, 韓成德, “社會指標의 概念과 活用”, (崇田大 論文集) (제1집), 1981, p. 60, 再引用.

4) 申道澈, “共產圈에서의 「삶의 質」研究”, 「社會科學과 政策研究」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제4권) (제1호), 1982. 3, p. 41.

오늘날 先進國家나 發展途上 국가들의 관심은 경제적 성장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社會 및 環境에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經濟·社會·環境의 측면들이 「삶의 질」이라는 인간적 要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인간의 本原的 價値인 「삶의 질」에 대한 歷史的 관심의 흐름은 人本主義的인 開發政策으로서의 轉換을 示唆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包括的 測定手段으로서의 「삶의 질」 指標의 意義

1) 「삶의 질」 指標의 概念

「삶의 질」 指標는 GNP 등 經濟指標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는데 Biderman은 “社會指標는 社會的으로 중요한 社會의 여러 條件을 제시해 주는 計量的 資料”라고 定義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用語를 제시하고 있다.⁵⁾ 이와같이 「삶의 질」은 社會指標의 개념과 더불어 그 定義가 가능하며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라는 用語를 社會科學的인 의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R. Bauer이다.⁶⁾ Bauer는 “Social Indicators”라는 著書에서 “社會指標는 價値 및 目標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가를 계측하고, 특정한 政策內容을 評價하고 決定할 수 있는 統計, 統計系列 및 모든 여타의 證據物”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社會政策的 機能 즉 특정한 社會政策을 評價하고 社會計定體系를 발전시키며 국가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設定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定義로 D. Macrae, Jr.의 定義를 들 수 있다.⁷⁾ 그는 社會指標를 政策指標(policy indicators)의 概念으로 대처시켜 이를 政策과 연관된 公共의 統計體系로 파악하고 많은 국민들이 政策決定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指標가 갖는 여러 定義들은 Land의 定義⁸⁾가 그 대표를 이루고 있는데 그는 社會指標를 機能的인 측면에서 볼 때 一般的으로 社會成員의 생활 및 社會的 條件의 水準을 測定하여 ① 이를 社會에 알리는 社會報告(social reporting), ② 이들 수준의 改善의 정도 내지는 變化(時系列)를 파악 비교하는 社會變化(social change)의 측정, ③ 政府施策의 評價, 社會目標의 設定 및 社會政策(social policy)의 樹立 등을 들고 있다. Land가 定義한 社會指標의 특징적인 정의들은 學者나 研究機關들이 어느 기능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삶의 질」 지표의 개념정의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隘路點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소망과

5) Albert D. Biderman, Ibid., p. 6.

6) Raymond Bauer, "Social Indicators", (Cambridge : MIT press, 1966), p. 1.

7) Ibid

8) Duncan Macrae, Jr., Policy Indicators : Links Between :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Chaple Hill, North Carolina : N. C. University press, 1985), pp. 4-13, : 또한 金炯烈교수는 經濟指標와 社會指標 그리고 文化指標를 좀더 포괄적으로 政策指標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炯烈 「政策學」(서울 : 法文社, 1990), p. 103.

9) K. C. Land and S. Spilerman, "Social Indicator Model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pp. 5~14.

기반위에서 社會開發目標을 설정하는 데 유효한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은 오늘날 세계각국이 당면한 急迫하고도 충격적인 개발문제에 따른 인간적 요소를 정책의 형성에 도입할 수 있는 誘導指標(guideline indicators)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국가정책의 수립은 국민의 위치·요구 및 소망하는 것을 목표로서 선정해야 함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2) 「삶의 질」指標의 機能

「삶의 질」指標의 기능은 앞에서 살펴본 概念定義에 잘 함축되어 있다. 「삶의 질」指標가 갖는 性格은 經濟指標(economy indicators)에 비해 보다 質的이고 主觀的인 人間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증시한다. 때문에 서술적인 정보뿐 아니라 規範的인 정보까지도 포함하므로 社會狀態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體系化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삶의 時次的 變化를 파악·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社會體系의 投入物보다는 產出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이러한 性格을 갖는 社會指標의 機能으로서 앞에서 Land가 지적한 3가지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社會政策的 機能으로는 ① 특정한 정부공공정책을 평가하고, ② 국민 경제제정과 유사한 사회경제체계를 설정하고, ③ 사회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며, 둘째, 社會變動的 機能으로서 ① 사회적 조건을 측정하고, ② 「삶의 질」내지는 인간생존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마련하여 여러 경제지표를 보완하며, ③ 사회변동을 측정하는 기능, 셋째, 社會報告的 機能으로서 ① 사회보고 체계의 개선과, ② 장래에 있을 사회적 사건과 사회생활의 예측의 기능 등으로 매우 간략하게 분류하고 있다.¹¹⁾

그런데 社會指標의 機能에 대해 學者들마다 見解가 다양하나 Land가 분류한 세가지 機能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見解들을 살펴보면 UN에서는 社會指標에 대해 政府나 일반국민의 社會的 관심의 대상인 여러 단면과 그 狀態를 規範的이 아닌 記述의 입장에서 추적·관리하고 人間의 生活條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社會의 여러 시설과 그 活動을 利用度, 分布, 投入과 產出의 측면에서 測定, 管理하며, 비록 모든 통계자료의 이용이 제한 받더라도 基本統計의 選定과 이용을 통한 指標의 統合化 내지 要約化로 比較研究를 가능케하는 것을 社會指標의 機能으로 보고 있다.¹²⁾

또한 라이스(Stuart Rice)는 社會指標가 복잡한 社會的 相互關係의 운영에 通路를 개척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社會的 狀態를 기술하고 社會問題를 규정지으며 社會의 趨勢(social trends)를 추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능들을 社會工學을 통하여 社會計劃에 의해서 형성된 社會目標을 誘導

10) 劉鐘海, 「現代行政學」(서울: 博英社, 1989), pp. 716~718.

11) K. C. Land & S. Spilerman, op. cit, pp. 5~14. : 安秉永外, 「社會指標」 「發展行政論」(서울: 法文社, 1986), pp. 245~248.

12) U. N., Social Indicators : preliminary Guide line and illustrative series, ST/STAT. M63. (N. Y. : 1978), pp. 8~11.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¹³⁾

프란체트(S., Franchette)는 社會指標의 機能을, 社會의 狀態와 社會變動속에서의 그 추세를 기술하는 指標의 技術적 相互關聯性(interconnections), 政策決定者에게 社會변동을 追跡·管理(monitoring)케 할 수 있는 分析用具(analytical tools)로 보았다.¹⁴⁾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統計廳에서 발간한 「韓國의 社會指標」에서 사회지표의 기능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¹⁵⁾

첫째, 國民生活의 量的인 측면은 물론 質的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두어 그 水準測定을 가능케 하므로 개인 및 사회의 전반적인 福祉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둘째, 각 사회상태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사회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측정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셋째, 社會狀態를 역사적 흐름속에서 나타내 줌으로써 앞으로의 사회경향 및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사회적 가치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변화를 유도·관리할 수 있게 하며, 넷째, 사회개발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意圖하지 않았던 附隨의이며 간접적인 효과, 특히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逆機能(disfunction)까지도 測定可能하게 해 줌으로써 사회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效果的인 정책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끝으로 이상의 다양한 社會指標의 기능들에 대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표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나타내고 복지측정에 기여하는 기능.

둘째, 福祉에 대하여 완전하게 형성된 규범이 없으므로 복잡한 체계인 한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道具가 된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사회지표는 사회변동의 분석을 위한 정보기능을 넘어서 체계분석과 관련된 動態的·構造的 기능을 가진다.

셋째, 이에따라 사회적 문제의 早期感知, 社會的 變化의 傳達, 소망스럽지 못한 變化에 대한 統制手段(control measures)을 형성하는 기능 등이 있다.

3. 「삶의 질」指標의 接近方法

1) 「삶의 질」指標의 體系化

「삶의 질」의 指標란 「삶의 질」의 狀態를 보다 간결하고도 定量化된 量的 概念으로 表示하는 手段을 말한다.

13) Stuart A. Rise, "Social Accounting and Statistics for the Great Society", in PAR. vol.27. (June, 1967), pp.169~174.

14) Serge Franchette, "Social Indicators : Problems of Methodology and Selection" in UNESCO, "Social Indicators : Problem of Definition and Selection (Paris : UNESCO, 1974), p. 7.

15)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서울 : 統計廳, 1991), pp.20~21.

때문에 「삶의 질」指標의 體系는 이에 포함되는 領域이 인간생활 전반을 포괄하리만치 광범하다. 그러므로 「삶의 질」指標의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領域間的 學際間(interdisciplinary approach) 領域에 있어서의 理論과 接近方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각 영역 지표간의 理論的 관련성과 計量的 關係를 提示할 수 있으므로 보다 통일된 社會指標의 體系化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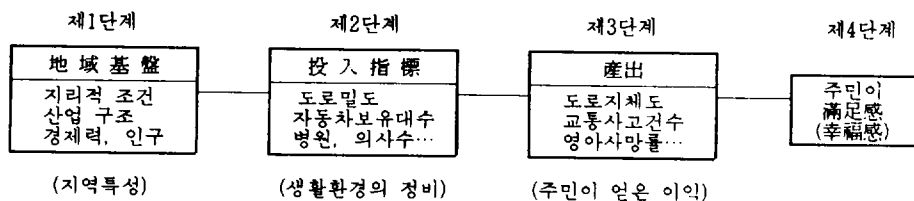
社會指標 및 「삶의 질」에 대한 模型(model)적 접근은 1970년대 초반부터 몇몇 學者들에 의하여 시도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體系的 理論은 生活周期論·人性論 및 社會體系論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¹⁶⁾

여기서 巨視的 測定方法으로써의 社會指標와 微視的 測定方法으로써 「삶의 질」指標作成을 위한 體系的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K. C. Land의 社會的 條件을 측정하는 사회지표의 模型을 보면¹⁷⁾ ①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의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產出記述의 指標(output descriptive indicators), ② 인간생존을 위한 여러 사회적 조건과 그 변화를 보다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一般記述의 指標(other descriptive indicators), ③ 產出指標의 値를 낮게 하는 사회과정에 관한 明確한 개념적 모형의 구성체로서 分析的 指標(analytic indicators) 등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구마가야(熊谷)는 福祉水準 내지는 주민의 滿足感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① 地域基盤에 관한 지표, ② 投入指標(input indicators), ③ 產出指標(output indicators), ④ 주민의 만족감에 관한 지표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¹⁸⁾ 여기서 사회지표는 일반적으로 投入指標(生活環境의 정비와 관련된 指標)와 產出指標(주민에게 얻어지는 損益)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體系化시킨 모형은 (表Ⅱ-1)과 같다.

〈表Ⅱ-1〉 指標作成의 體系



(資料: 尹鍾周, 前掲 論文, p. 292 參考)

16) K. A. Fox는 社會指標의 作成目的이 한 國家의 統計資料體系와 報告體系 및 이의 制度化에 있지만 적어도 개인의 발달과정, 價値 및 觀心들에 대한 理論들을 측정되어야 할 社會指標의 指標選定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社會科學의 理論이 社會指標 體系化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arl A. Fox,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Theory", (N. Y. : John Wiley & Sons, 1974), pp. 5~16. : 尹鍾周, "韓國社會의 社會指標開發을 위한 基礎研究" 「福祉社會의 本質과 具現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 288~289,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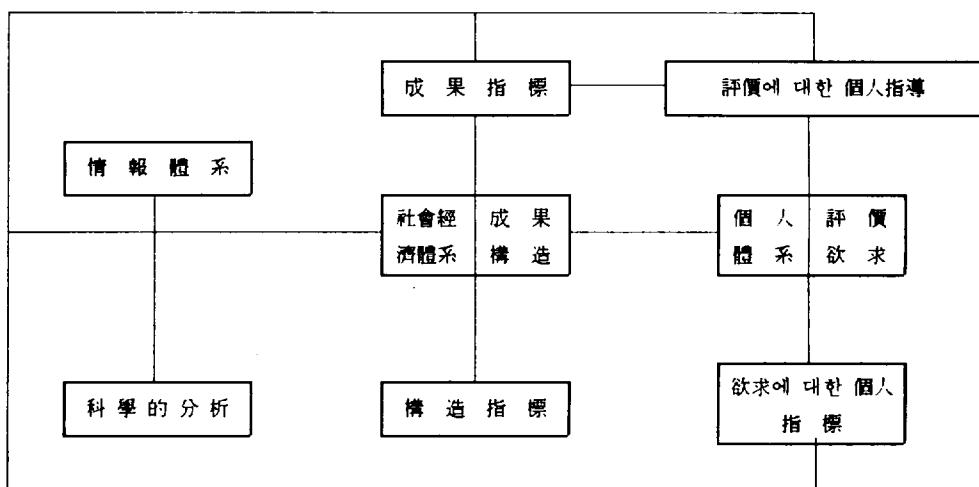
17) K. C. Land,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 views", in K. C. Land & S. Spilerman (ed), Social Indicator Model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p. 17.

18) 熊谷彰矩, "社會指標", 加藤寬(編), 「社會開發政策」, (育林雙書, 1975), pp. 190~209.

즉 住民의 滿足感은 生活環境의 시설 정비 및 서어비스의 충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효과 다시 말해서 주민에게 얻어지는 利益·損益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지표의 항목선정에 있어서는 生活環境의 정비 및 서어비스 상황을 나타내는 投入要素와 生活環境이 주민에게 주는 편익 내지는 손익을 나타내는 產出指標가 서로 상응되도록 하는 것이 체계 구성이나 지표선정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언급한 Land와 熊谷의 견해를 중심으로 社會指標의 體系化를 위한 準據틀은 (表Ⅱ-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表Ⅱ-2) 社會指標 및 「삶의 질」指標의 體系化를 위한 準據틀



「삶의 질」의 指標은 사회적 조건이나 變動을 측정하기 위해 社會體系的 構造 및 成果에 대한 客觀的인 자료를 수집하여 客觀的으로 分析하게 하는 일면이 있으며, 또한 社會構造 내지 成果에 대한 개인의 主觀的인 評價와 期待, 滿足感 등을 측정하고자 하는 兩面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삶의 질」指標은 公共政策에 적절한 政策情報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2) 「삶의 질」指標의 要因들

「삶의 질」指標의 중요한 要因들은 보다 나은 인간생활 즉 인간의 福祉生活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구되어야 할 社會的인 目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欲求를 체계화 시키는 일로서 社會目標나 社會開發의 대상을 범주화 하는 것이다. 이를 社會的인 目標分野로 구분하고 이를 또 下位關心事項(sub-concern)으로 分類하여 「삶의 질」이란 客觀的인 조건과 主觀的인 欲求나 價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어진 客觀的이고 外面的인 「삶의 질」要素는 (表Ⅱ-3)과 같이 例示할 수 있다.²⁰⁾

19) 尹鍾周, 前掲書, p. 293.

20) 金璟東, 「發展의 社會學」(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9), pp. 181~182.

〈表Ⅱ-3. QOL(Quality of Life) 要因들의 例示〉

QOL측면	개 인	사 회 조 직 단 위 수			
		가 족	조 직 체	지 역 공 동 체	국 가 사 회
1. 경제안정과 보장 성장과 향상 고용, 생산성 소비와 생활 비	직업안정 생활수준 직업만족 욕구충족	소득, 자산 보장 소득향상 고용기회 생활비, 세금	안정·사회보호 자산안정 성장 생산성 세금	사회보험 생활수준향상 고용과생산성 소비유형	안정·사회 보장 경제성장 고용과 생활 투자·세제 소비
2. 자연환경 공해 자연자원 보 존과 개발 여가를 위한 자연환경, 심미	안녕 자연보호 심미, 여가	안전 자연보호 심미, 여가	공해통제 보호개발 공공기여	안녕 보호 자원확보	공해정책 보호개발 정책
3. 물리적 조건 (주택과 근린 집단) 교통 통신기타서 비스	프라이버시 편익 편익	밀도 자가용 자가용	주택보장 이용, 기여 이용, 기여	공공주택, 밀도 공공교통수단 공공교통수단	주택정책 교통정책 통신정책
4. 사회환경 안정과 질서 신체적 보장 보건위생 인적자원개발 인구 사회관계	개인의 안녕 건강 사회화 재생산 일차적관계	가족과 안녕 위생 사회화 출생·사망 일차적관계	안전 의료보험안전 직업훈련 이동 이차적관계	범죄와 비행 보험, 보건 교육과 훈련 이동구성성장 자발적결사체	국방 보건의료정책 교육·고용정책 인구정책 자발적 부문
5. 문화적환경 정신적 정서적 상징적 매스미디어	신앙 안정·만족 사고력	종교 안정·만족 사고력	윤리 안정·만족 창의	종교제도 박물관 도서관	종교정책 문화정책 과학, 교육정책

(資料: 金璟東, 「發展의 社會學」,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9), pp. 181~182).

앞에 제시한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보면 우선 삶의 유지되기 위한 經濟的 조건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기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環境的·物理的 「삶의 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外形의 수준에서 狹義의 社會文化的 「삶의 질」을 관찰하는 지표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삶의 질」 要因들은 個人·家族·職員·組織體·地域共同體 그리고 國家水準에서 살필 수 있다.

이상의 外面的·客觀的 「삶의 질」 要素를 主觀的·內面的인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분류한 「삶의 질」構成要素의 概念的 틀은 (表Ⅱ-4)와 같다.²¹⁾

21) 金璟東, 前掲書, p. 183.

(表 II-4) 「삶의 질」構成要素의 類型

外面의 水準	內面的 水準	手動的 水準
객관적	주관적	방향성
생리적	심리적	운동/발전
내용, 실질적	과정적	의도되는 것
관찰된 것	느끼는 것	상징
지위	행위	이미지
환경적	개인적	의미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
사물	관계	성장
외면적	내면적	전망에 관한 것
물리적	감정적	

(資料 : 金璟東, 前掲書, p.183)

3) 接近方法의 例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社會科學者나 國際機構에서 인간의 본원적 가치인 「삶의 질」에 대한 指數를 개발하기 위한 接近方法 研究에 박차를 가했다.

「삶의 질」의 體系化를 위해서는 社會指標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이다. 일찌기 Raymond A. Bauer는 統合的인 社會開發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經濟指標를 高度로 組織化 할 수 있는 한 社會指標도 체계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시켰다.²²⁾ 그 후 UN과 그 專門機關에서 비롯되었는데, UN은 憲章 제55조에서 「높은 生活水準에의 增進과 經濟的 및 社會的 進步와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 것처럼 각국의 사회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²³⁾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國家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美國의 관심은 대단하다.

美國環境保護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 P. A)이 최근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Fred Singer教授(Virginia 大學)는 “生活指標開發은 可能한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삶의 질」에 대한 指標開發을 위한 接近方法들을 說明하고 있다.²⁴⁾ 이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삶의 질」의 構成要素들로는 經濟的 環境, 政治的 環境, 保健 및 自然環境의 部門(sectors)으로 구분하고 이 부문 밑에

22) R. A. Bauer, "Societal Feed-Bac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67, pp. 180~192.

23) 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no. 54. iv. 5 (U. N. 1954).

24) 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ality of Life Indicators, A Review of State-of-the-Art and Guideline Derived to Assist in Developing Environmental Indicators, Dec., 1972, pp. 36~37. : 金永燮, 「社會開發의 政策手段으로서의 開發指標에 관한 研究」, pp. 129~139. 再引用.

30여개의 要素(factor)와 下位要素(sub-factor)로 분류하였다.

또한 P. A. House博士는 「삶의 質의 指標」를 環境, 社會 및 政治, 經濟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總 34개의 變數를 설정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質」의 關係式을 다음과 같이 作成했다.²⁵⁾

$$\text{「삶의 質」指標(QOL Indicators)} = \sum_{i=1}^n W_i(I_i)$$

(W는 指標(I)에 의하여 표현된 QOL의 構成要素가 되는 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우선 선택 기능, 즉 가중치를 의미하고 (I_i)는 QOL의 단위지표인 個別指標를 의미한다.)

이 函數關係는 「삶의 質」을 改善시키기 위한 資源配分の 費用과 원래의 指標(I_i)간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美國 聯邦豫算局에서 1971년에 발간한 「白堊館의 青年問題會議 報告書(The Report of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Youth)는 國家的 차원에서의 政策決定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⁶⁾

- (1) 自然環境: 自然美와 野生生物의 保存 및 日常的으로 황폐하지 않는 들과 물을 接할 수 있는 機會의 保存.
- (2) 生活環境: 都市, 郊外, 시골生活 및 勤勞地域에 對한 바람직한 生活環境의 全面的인 維持, 청결한 공기와 물, 用地, 一般衛生 및 保健, 住宅 및 建物の 安全, 建築과 道路의 美觀에 대한 最低條件의 維持
- (3) 一般保健: 基本的 衛生과 安全維持, 充分한 健康保護, 靑少年을 위한 철저한 醫療施設.
- (4) 所得과 基本的, 經濟的 安寧: 個人的 經濟的 搾取의 최소화, 最低保障 生活水準, 公平한 富의 分配과 向上된 經濟狀況을 추구하기 위한 持續的 機會
- (5) 雇傭과 生産性: 公平한 富의 分配과 向上된 經濟狀況을 추구할 수 있는 持續的 機會과 生産의 機會를 위한 全般的 對備.
- (6) 總經濟의 進歩: 消極的 및 豫防的 生産(예컨대 煤煙統制考案)과 環境의 危害關係 警비를 考慮한 社會的 總經濟의 生産
- (7) 研修, 敎育 및 敎養: 利用할 수 있는 技術問題解決能力 및 世界의 價值觀을 習得하는 機會
- (8) 威脅과 強制에 관한 正義와 自由: 危害 또는 安寧을 威脅하는 要素의 最少化, 社會와 個人間의 相互關係作用에서 行해지는 否定的 制裁에 反하는 肯定的 範圍의 擴大.
- (9) 個人主義: 自由로운 表現, “生活形態”(life style)의 選擇을 위한 機會, 社會的 寬容과 疎

25) 金永變, 前掲書, pp. 346~354.

26)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p.cit., p. 57. 金永變, “政策決定의 合理性 提高를 위한 삶의 質의 調査方法에 관한 연구”, 「行政問題論集」, (한양대학교, 1992.), (제11집), pp. 14~15.

外的 水準.

이러한 기준들은 經濟·社會環境의 3가지 영역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 範疇로 正해질 수 있다.

主觀的 指標의 測定方法으로 Cantril과 Roll은 「삶의 질」 측정에서 大衆參與를 통한 價値體系 확립을 모색하는 「自己期待成就를 위한 努力 尺度」(Self-anchoring Striving scale)를 개발했다.²⁷⁾

이 接近方法은 (표 II-5)와 같이 11개의 사다리 위치에 응답자가 스스로 체험한 삶의 상태를 가장 “最適의 상태”와 “最惡의 상태”의 兩極을 놓고 그 中間에 스스로 評點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時系列의 특징, 즉 過去 5년전의 기억과 現在의 상태, 그리고 5년후의 미래에 대한 期待值를 評點함으로써 時系列上的 變化추이를 평가하는데 있다.

「表 II-5」 Cantril과 Roll의 尺度와 時系列上的 變化 추이

10		個人的 希望				個人的 不安		
		1959	1964	1971		1959	1964	1971
9	自身の 養護한 健康	40	29	29	自身の 健康惡化	40	25	28
8	보다 나은 生活水準	38	40	27	生活水準의 下落	23	19	18
7	世界平和	9	17	19	戰 爭	21	29	17
6	자식들에 대한 期待 成就	29	35	17	家族의 健康惡化	25	27	16
5	幸福한 家庭生活	18	18	14	失 業	10	14	13
4	家族의 健康	16	25	13	인플레이션	1	3	11
3	自身の 住宅을 所有 또는 더 나은것을 期待	24	12	11	자식들의 不幸	12	10	8
2	마음의 平和: 情緒的 圓熟	5	9	8	家族의 마약중독	-	-	7
1	富의 所有	2	5	7	公 害	-	-	7
0	餘 暇	11	5	6	政治的 不安定	1	2	5
	老齡期의 幸福	10	8	6	不安은 전혀 없다	12	10	5
	마음에 맞는 職業, 勞動	7	9	6	犯 罪	-	-	5
	就 職	5	8	6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解放	1	2	6				
	家族에 對한 其他 일반관심사	7	4	5				

이러한 접근방법은 開發政策의 方向을 設定, 評價하고 社會計劃을 위한 規範的 情報(normative information)으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 Campbell도 「福祉의 條件」이란 이름으로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면서 삶의 영역별 관심분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⁸⁾

27) Albert H. Cantril and Charles W. Roll, Jr.,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 (New York : Potomac Associates, 1971), pp. 15~20.

28) Angus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 McGraw-Hill, 1981), pp. 55~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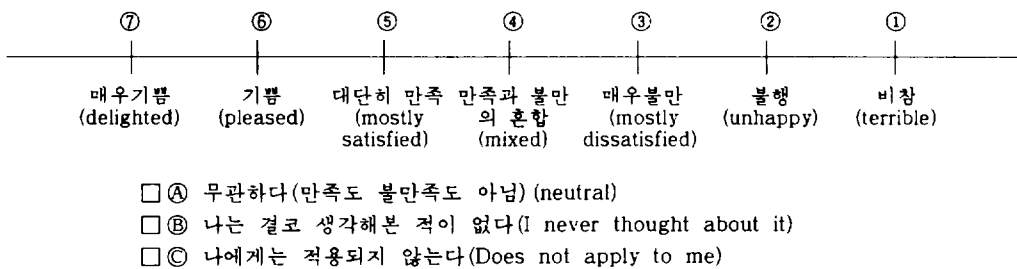
- ① 높은 地位의 享有
 - A. 所得의 滿足
 - B. 教育의 滿足
 - C. 職業의 滿足
- ② 結婚狀態
 - A. 結婚의 滿足(男女)
 - B. 소득, 교육, 연령, 종교, 가족의 배경과 부부관계의 認知
 - C. 가족관계
 - D. 子女의 所有
- ③ 家族과 親舊의 所有
 - A. 家族構成員의 친근도
 - B. 親舊關係의 만족도
- ④ 일거리의 所有
 - A. 就業中
 - B. 職業의 經驗
 - C. 就業에의 滿足度
 - D. 解雇 및 退職狀態, 自由時間
- ⑤ 就業女性の 存在
 - A. 女性の 家庭就業—家事에의 幸福感
 - B. 아내로서의 일의 滿足—非雇傭 또는 隱退
- ⑥ 住居場所
 - A. 4개의 地域(city, town, country, community)
 - B. 이웃에의 만족
 - C. 주택에의 만족
- ⑦ 美國에서의 生活
 - A. 美國生活에 대한 認知
 - B. 政府에 대한 信賴·公平性和 自由
 - C. 美國生活의 만족 또는 불만
- ⑧ 壽命
 - A. 삶의 週期
- ⑨ 個人的 特性和 自我感覺
 - A. 健康에의 만족
 - B. 自我에의 만족과 개인적 통제

Campbell은 이밖에도 「삶의 질」의 관심분야로서 幸福과 不幸의 3大 要素로 所有의 欲求(need of having), 關係의 欲求(need of relating), 存在의 欲求(need of being) 등을 제시하고 欲求水準의 高低로 측정하고 있다.²⁹⁾

또한 S. B. Withey 등은 情的 評價(affective evaluation)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肯定的 또는 否定的 감정의 정도를 (表Ⅱ-6)와 같이 7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³⁰⁾

表Ⅱ-6. 情的 評價의 評點을 위해 사용된 範疇

내가 느끼기에,



또한 우리나라 社會指標作成에 指針이 된 國際聯合社會開發研究所(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UNRISD)는 「生活水準 및 生活水準의 定義와 測定에 관한 報告」³¹⁾를 1954년에 발표했다. 이 報告書에서 제시한 生活水準의 構成要素로서 ① 健康, ② 食糧 및 營養, ③ 教育, ④ 勞動條件, ⑤ 雇傭狀態, ⑥ 總支出 및 總貯蓄, ⑦ 輸送, ⑧ 住宅, ⑨ 醫療, ⑩ 餘暇利用 및 娛樂, ⑪ 社會保障, ⑫ 人權으로서의 自由 등 12개의 分野는 「生活水準指標」(The Level Living Index)로 광범위 하게 活用되고 있다. 여기서 生活水準의 개념은 단위시간에 人口가 향유한 財貨와 用役이 흐름의 결과로서 얻어진 그 人口의 필요에 대한 만족의 수준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生活水準 指數는 福祉의 흐름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³²⁾

UNRISD의 生活水準指數의 指標體系와 具體적인 指標들은 (表Ⅱ-7)과 같다.

이 指標의 接近은 우선 人間이 生活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널리 觀察할 수 있는 欲求 즉 人間欲求(human needs)를 (1) 人間이 生活을 영위하는데 최소한 要求되는 基本的·物理的 欲求

29) Ibid., pp. 224~225.

30)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 Perspectives of Life quality (N. Y. : Plenum Press, 1976), p. 8.

31) UNRISD, Reporting on the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No. 4, (N. Y. : 1954).

32) Jan Dre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Geneva : UNRISD, 1970), pp. 37~38.

姜東植, 「社會指標」의 概念과 體系에 관한 考察, 濟州大學校論文輯 (제31집), 1990, pp. 483~485.

〈表 II-7〉 UNRISD. 「生活水準指標」(1966)의 指標體系

欲求分類 (Groups of Components)	構成要素(領域) (Components)	指 標 (Indicators)
A. 基本的인 物理的 欲求 (Basic physical needs)	I. 營養 (Nutrition food intake)	(a) 1人當 1日 calory 攝取量 (必要量에 대한 百分比) (b) 1人當 1日 蛋白 攝取量(g) (c) 炭素化合物의 全 calory에 대한 百分化
	II. 住居 (Shelter)	(a) 1人當 住宅 서비스 (b) 住居密度(戶當家口員數) (c) 住宅對 家口數比率
	III. 健康 (Medical care and health services)	(a) 受診可能人口의 比率 (診療所中心 半徑 4時間의 施行距離) (b) 傳染病·寄生蟲 死亡者의 總 死亡者에 대한 比率 (c) 50才以上 死亡者의 總 死亡者에 대한 比率
B. 基本的인 文化的 欲求 (Basic cultural needs)	IV. 教育 (Education)	(a) 就學率 (b) 卒業率(卒業者의 登錄者에 대한 比率) (c) 學生·教員比
	V. 餘暇利用 (Leisure and Recreation)	(a) 1人當 年間 餘暇時間 (b) 人口千名當 日刊新聞發行部數 (c) 人口千名當 radio TV 普及率
	VI. 安全 (Security)	(a) 人口百萬當 年間 事故事件數 (b) 失業·疾病에 따른 休業補償率 (c) 老年年金制度의 適用率
C. 高次的 欲求 (C/Higher needs)	VII. 剩餘所得 (Surplus income)	實際의인 滿足度의 水準이 基本的 欲求充足費를 웃도는 剩餘所得

資料 : UNRISD, The level of Living Index, No. 4, Geneva, 1966.

※ 여기서 安全이라 함은 個人의 身體的 安全, 現生活 및 未來生活의 安全維持를 말함.

(basic physical needs), (2) ①을 넘어선 基本的 文化的 欲求(basic cultural needs), (3) ①과 ②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생활상 직접적 연관이 없는 高次元의 欲求(higher needs) 등 3분야로 분류하여 이를 構成集團(group of components)이라고 하였으며 각 構成集團內에 사회지표의 관심영역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설정·배정하고 있으며, 각 수준에 따라 7개의 構成要素³³⁾가 각각 3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指標項目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표가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量的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① 指標領域을 代表할 수 있고, ② 指標領域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군

33) 7개의 構成要素로는 ① 營養, ② 住居, ③ 健康, ④ 教育, ⑤ 餘暇 및 娛樂, ⑥ 安全, ⑦ 잉여소득 등이다.

등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③ 기존 통계에서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³⁴⁾

Ⅲ. 韓國에서의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

1. 「삶의 질」의 論議

韓國에서도 政策立案者들이 사회개발계획을 樹立하면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에 관심을 나타내게 된 것은 先進國보다 10여년 후인, 1970년대 초로 볼 수 있다. 당시 保健社會部는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經濟開發5個年計劃속에 社會開發(Social development)의 내용을 擴充시키겠다는 政策的 의지아래 社會開發長期計劃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담당한 保社部 산하의 社會保障審議委員會(약칭: 社保審)는 주로 U·N 社會開發機構(UNRISD)의 社會指標模型에 따라 「韓國의 社會指標」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획이 작성결과 社會開發이라는

〈表Ⅲ-1〉 社保審의 諸報告書에 包含된 社會開發領域의 推移

社會開發基本構造 (第1輯 1968年)		社會開發長期展望 (1969年)	社會開發長期計劃 (第2輯 1970年)	社會開發(第3輯) 部門別 事業展望 (1974年)	
必要性項目	內 容			1973年試案	1974年
1. 價値觀 2. 都市化 3. 人口 4. 人力開發 5. 保健 6. 住宅 7. 所得格差 8. 消費生活變動 9. 最近生活保障	1. 社會開發의 精神 的 基盤 2. 經濟開發促進 1) 社會施設擴充 2) 地域社會開發 3. 人力開發 1) 人口 2) 人力開發 4. 生活環境 1) 住宅 2) 公衆保健 3) 公害 4) 리크레이션 5. 國民生活向上 1) 消費生活保護 2) 最低生活保障 3) 社會福祉 4) 社會保險	1. 精神基盤確立 2. 人力開發 1) 人口 2) 人力 3. 生活環境 1) 住宅 2) 空中保健 3) 公害 4) 리크레이션 5) 社會施設 6) 地域社會開發 4. 國民生活向上 1) 消費生活保護 2) 最低生活保障 3) 社會福祉 4) 社會保障	1. 人口 2. 人力 3. 教育 4. 保健 5. 營養 6. 住宅 및 生活環境 7. 社會保障 8. 社會福祉 9. 地域社會 10. 機構執行	1. 人口 2. 教育人力 3. 保健 4. 住宅 및 生活環境 5. 社會保障 6. 社會福祉 7. 地域社會 8. 機構執行	1. 人口 2. 教育人力 3. 保健 4. 社會保障 5. 社會福祉 6. 社會氣風 7. 住宅 및 生活環境 8. 地域社會開發 (새마을事業) 9. 機構執行

資料: 崔千松, 韓國社會保障論, 1977, p. 81.

34) 尹鍾周, 前掲論文, pp. 308~311.

이름하에 「삶의 질」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³⁵⁾

社保審에서 社會指標을 사회개발계획작성의 목적으로 이용한 이후 公共機關에 의한 사회지표의 연구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75년 10월부터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의 지원을 받아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과 韓國開發研究院(KDI)의 共同으로 「人口統計改善: 開發計劃作成을 위한 社會·經濟 指標」(Population Statistics Improvement with Emphasis in Socio-Economic Indicators for Development Planning)연구가 수행되면서 社會開發에 있어서 「삶의 질」에 관심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³⁶⁾ 이와같은 연구는 1977년부터 시작될 제4차 5개년 계획을 통한 사회개발의 기반조성과, 제5차 經濟·社會開發5개년 계획기간의 사회개발계획 부문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에 대비하기 위한 社會指標作成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³⁷⁾ 이 연구 사업은 OECD의 사회관심점근방법에 따른 top-down 방식을 채택하여 우선 국가개발의 관계가 깊은 사회적 관심을 설정하고 이들의 변수로서의 指標를 발견하고 끝으로 指標의 값을 측정한다는 전략아래 社會指標의 體系와 구체적인 지표항목의 설정을 社會的 관심부문, 主要指標-副次指標-將來開發될 지표의 과정에 따라 構造化하였다.³⁸⁾ (표Ⅲ-1 참조)

2. 「삶의 질」의 開發과 體系化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先·後進國을 가릴 것 없이 經濟成長으로 인한 物質主義思考에 맞서 대두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指標의 개발과 체계화는 선진국인 美國과 國際機關인 國際聯合社會開發研究所(UNRISD)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자료를 토대로 社保審에 의해 이루어 졌다.³⁹⁾

사보심에서 연구된 보고서의 主要領域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社會變動의 價值規範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증시, 價值觀 내지 社會開發의 정신적 기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다. 그 결과 1978년 경제기획원과 KDI합작으로 「韓國의 社會指標」가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⁰⁾

35)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開發計劃」 제2집, 1970, 제3집 (1973), 「社會開發: 部門別事業展望」(1974) 등 참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 報告書가 現實으로 社會指標의 開發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社會指標」라는 用語를 쓰지 않고 「社會開發」이라는 이름아래 包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36) 이 연구에는 人口學·經濟學·社會學·政策科學·統計學·醫學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人口·所得·消費·雇傭·人力·教育·保健·住宅·環境·社會·公安 등 8개 부문에 걸쳐 3년간(1978년까지) 계속되었다.

37) 姜東植, 前掲書, pp. 503~503.

38) 經濟企劃院 KDI, 「韓國의 社會指標」(해설편), 1978, pp. 43~44.

39) 社保審에서 주관이 되어 「삶의 질」 측정과 더불어, 사회개발의 내용을 확충시키겠다는 의지아래 사회지표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7년 경이며, 주로 UN 사회개발기구의 사회지표 모형에 따라 개발, 1968년에 「사회개발 제1집: 기본구상」이 출간된 것이 효시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姜東植, 前掲書, p. 450.

40) 經濟企劃院, KDI, 「韓國의 社會指標」, (해설편), 1978, pp. 43~44.

「韓國의 社會指標」의 지표체계는 I, 人口, II, 所得·消費, III, 雇傭·人力, IV, 敎育, V, 保健, VI, 住宅·環境, VII, 社會, VIII, 公安 등 8개 관심부문으로 구분하고, 42개의 사회적 관심 영역, 125개의 主要社會指標, 59개의 부차적 지표, 그리고 166개의 장래개발지표 등 총 350개의 지표항목을 선정 건의 하였다. (表Ⅲ-2참조)

이에 따라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은 78년에 試案으로 114개의 지표를 최초로 體系化 한 이후, 79년에 128개, 80년 151개, 81년 166개, 82년 177개, 83년 187개, 84년 198개, 85년 208개, 86년 215개, 87년 224개, 88년에는 새로운 指標體系⁴¹⁾에 따라 243개, 89년 252개, 90년 262개, 91년 272개를 작성 (表Ⅲ-3) 하고 있다.

(表Ⅲ-2) 社會指標體系(1978: 共同研究案)

社會的 關心部門	社會的 關心領域(將來關心領域)	社 會 指 標			
		主 要 指 標	副 次 指 標	將來開 發指標	計
人 口	1) 人口規模와 變動 2) 人口構造와 分析	24	2	-	26
所得·消費	1) 所得水準 2) 所得分配 3) 消費支出 4) 貯蓄水準	8	-	3	11
雇傭과人力	1) 雇傭構造 2) 勞動條件 3) 安全保障 4) 職業選擇과 移動 5) 勤勞者의 自己開發 6) 非差別 優待 7) 勞使關係	18	29	20	67
敎 育	1) 敎育機會의 擴大 2) 敎育機會의 均等 3) 敎育資源의 確保 4) 敎育資源의 活用 5) 敎育效果	13	18	24	55
保 健	1) 死亡과 疾病 2) 體位와 體力 3) 營養狀態 4) 保健醫療서비스 5) 醫療人力	15	4	40	59
住宅과環境	1) 住居狀態 2) 環境公害 3) 災 害	14	3	17	33
	① 家庭生活 1) 家族形態 및 解體 2) 家族構造의 安定性 3) 家族關係의 圓滑化	7	3	12	22

41) 1988년에는 78년의 지표체계화 이후 사회변동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존의 사회지표체계를 개선, 총 468개의 지표를 체계화 하였다.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9, pp. 20~21.

社 會 的 關 心 部 門	社會的 關心領域(將來關心領域)	社 會 指 標			
		主 要 指 標	副 次 指 標	將來開 發指標	計
社 會 部 門	4) 家族生活水準의 向上				
	② 社會保障 1) 保險加入과 適用의 普遍化 2) 保險支給水準의 合理化 (1) 社會保險 3) 保險費負擔의 公正化 4) 社會的 機能의 回復 5) 心理的 滿足 1) 主要保護對象者의 全權保護 2) 公的 扶助事業費의 確保 (2) 公的扶助 3) 保護의 質的 向上 4) 社會的 機能의 回復 5) 心理的 滿足	8	-	17	25
	③ 餘 暇 1) 餘 暇 2) 餘暇活用	9	-	9	18
公 安	1) 犯罪로부터의 安全 2) 保安能力 3) 法的 公正性과 人道的 考慮 4) 安寧感	10	-	24	34

資料：經濟企劃院・韓國開發研究，「韓國의 社會指標(解說篇)」第3章，pp. 66~141.

(表Ⅲ-3) 韓國의 社會指標體系(1991年)

1. 人口部門(22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總人口成長	人口趨勢	總調查人口
		年中推計人口
		年平均 人口成長率
		人口密度
	自然增加	粗出生率
		粗死亡率
	國際移動	移民率
	推計人口	將來推計人口
		將來推計人口 成長率
出生과 死亡의 構造	年齡別 出產	年齡別 出產率
		總出產率
	出產抑制	年齡別 人工流產率
		總人口流產率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人口分布와 移動	道別人口	市·道別 人口比率
	都市人口	市部人口比率
	國內移動	地域別 轉入率
		地域別 轉出率
		地域別 純移動率
人口構成	年齡 및 性構成	年齡階層別 人口構成比率
		國民平均年齡
		扶養人口比
		人口老齡化 指數

2. 所得·消費部門(15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所得水準	所得	1人當 GNP
		1人當 可處分所得
所得分配	分配狀態	所得 10分位別 所得分布
		所得集中度
		所得階層別 家口分布
		家口主 活動狀態別 年間所得
		被傭者 報酬比率
		都市·農村家口의 平均所得比率
		所得 10分位別 階層 歸屬意識
	再分配	租稅負擔率
消費水準	消費規模	GNP에 對한 民間消費 支出率
		1人當 消費支出額
貯蓄水準	國民貯蓄水準	國民貯蓄率
經濟的 生活의 安定	所得의 安定	將來 家口所得에 對한 期待
	消費의 安定	消費 物價上昇率

3. 所得・消費部門(15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雇傭構造	經濟活動參加	經濟活動參加率
	就業	就業者 中 被雇傭率
		常時雇傭率
		產業別 就業者 構成比
		職業別 就業者 構成比
		事業體當 平均 勤勞者數
		大企業體 勤勞 比率
		高齡勤勞者 比率
		既婚女性 勤勞者 比率
		女性 專門技術・行政管理職 從事者 比率
		長期勤續 女性 比率
		女性就業者의 就業事由
	失業	失業率
		教育程度別 失業率
		失業期間別 失業者 構成比
	勤勞時間	企業의 平均 休日數
		週當 平均 勤勞時間
	賃金	平均 名目・實質 賃金指數
		職種別 賃金水準
		地域別 賃金水準
		產業別 賃金水準
		教育程度別 賃金水準
		家口主 外 家口員 所得比率
		基本給 比率
	勤勞與件에 對한 滿足度	일(職務) 滿足度
		賃金 滿足度
		勤勞時間 滿足度
		職場의 將來性 滿足度
		作業環境 滿足度
		職場內 人間關係에 對한 滿足度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安全保護		全般的인 人事·勞務管理에 對한 滿足度
		職業選擇 要因
	豫防策	健康震撞受檢率
		職業病 有病勤勞者比率
		災害 度數率
		災害 強度率
		災害 萬人率
		散在保險適用 勤勞者比率
	救濟策	入職率
		離職率
		求職倍率
		就業斡旋比率
勤勞者 自己開發	人力資源의 形成	職業訓練者數
非差別 待遇	性別 非差別	性別 賃金格差
		性別 勤續年數格差
		性別 勤勞時間格差
		女性就業에 關한 態度
	年齡別 非差別	年齡階層別 賃金水準
勞使關係	團結權	勞動組合 組織率
		勞動組合 登錄數

4. 敎育部門(36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敎育機會	國民의 敎育熱斗 水準	國民의 平均 敎育年數
		國民의 學歷構成比
		家口主의 子女期待 敎育水準
	敎育機會의 擴大	就學率
		幼稚園 就園率
		進學率
		人口 萬名當 大學生數
		放送通信高校·大學 및 開放大學 學生數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教育機會의 充足度 및 未充足 理由
	教育機會의 均等	學生人口比率
		學生數
教育資源	人的資源의 確保 및 活用	敎員 1人當 學生數
		敎員의 平均 教育履修年數
		敎員의 平均 經歷年數
		教育의 平均年齡
		女敎師 比率
		敎員의 離職率
		事務職員當 敎員數
	物的資源의 確保 및 活用	學校當 學級數
		學級當 學生數
		學生 1人當 校地面積
		學生 1人當 建物面積
		學生 1人當 體育場 面積
		學校圖書館 座席當 學生數
		學生 1人當 學校圖書館 藏書數
	教育財政의 確保 및 活用	政府豫算 對 教育豫算
		家口當 教育費 支出率
		GNP 對比 研究開發 投資比率
		教育費 負擔에 對한 認識 및 負擔要因
教育效果	學業成就度	卒業率
	教育目標達成度	教育의 知識·技術 習得의 效果
		教育의 人格形成에의 效果
		教育의 體力增進의 效果
	人力的 養成供給	卒業生의 就業率
		專攻分野別 大學生比率
教育意識	國民의 學校教育觀	子女教育의 目的

5. 保健部門(35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健康狀態	生存年數	期待餘命
	成長	身長
		習重
		胸圍
	營養攝取	熱量攝取量
		蛋白質 攝取量
		糖消費量
		肉類消費量
	個人健康評價	飲酒人口比率
		吸煙人口比率
		健康管理方法
		個人的 健康評價
死亡 및 疾病	死亡水準	嬰兒死亡率
		母性死亡率
	死亡原因	主要死亡原因 構成比
	疾病	結核有病率
		寄生蟲 感染率
		類患者 登錄者數
	疾病評價	罹患率
		活動制限 日數
		臥病日數
保健醫療人力 및 施設	保健醫療人力	醫療人力當 人口
	醫療施設	醫療機關數
		病床當 人口
保健醫療利用	豫防	產前診察率
	診療	醫師診療者數 및 1人當 治療日數
		分娩介助者別 構成比
	이용	醫療施設 接近驅擾時間別 家口
		1次 診療場所
		病床利用率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入院患者比率 平均 入院日數
	醫療費	家口當 醫療費支出率
	醫療서비스 充足	醫療人에 對한 信賴度 醫療서비스에 對한 滿足度 및 不滿理由

6. 住宅・環境部門(43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住居狀態	住宅供給	住宅數
		住宅普及率
		住宅投資率
		年間 住宅建設戶數
		自家住居 家口比率
	住居空間	住宅當 居住家口數 比率
		家口當 使用建坪
		家口當 使用房數
		戶當 家口員數
		住宅에 對한 滿足度
	住宅需要	都市住宅 賣買價格指數
		都市住宅 傳賣價格指數
		最初 住宅마련 時期
		最初 住宅마련시 資金調達方法
		원하는 住宅形態
		원하는 住宅規模
	住居費用	家口當 住居費 支出率
	住宅附帶施設	上水道 普及率
		1日 1人當 給水量
		立式부엌 施設率
		沐浴湯 施設率
		水洗式 便所 施設率
		炊事用 燃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暖房方式別 住宅分布
		電話 普及率
		1人當 電力消費量
		1人當 에너지使用量
	隣近便宜施設	通學 所要時間
		出勤 所要時間
		主된 通學・通勤手段
		道路延長
		道路 鋪裝率
		乘用車 普及台數
		便益施設 滿足度
		隣近 道路 및 交通施設 滿足度
	周圍環境	現居住地 選擇理由
環境公害	環境汚染	現居住地域 滿足度
		主要河川 汚染度
		主要海水 汚染度
		主要都市 大氣汚染度
		主觀的 公害
災害	自然的 災害	風水害

7. 社會部門(24個 指標)

A. 家族(18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家族形成 및 解體	結婚	婚姻狀態別 人口構成比
		平均 初婚年齡
	子女出產	家族計劃 實踐率
		期待子女數
		理想子女數
	家族解體	離婚事由別 構成比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家族構造의 安定性	家口와 家口員數	平均 家口員數
		家口의 世代構成形態比率
		不安定家口比率
家族關係의 圓滑化	夫婦, 父母 및 子女 關係	青少年 苦悶에 對한 見解
		老父母 扶養責任에 對한 態度
		老後準備方法
		家庭生活 滿足度
家族의 生活安定 및 保護	公的保護	公的扶助 人口
		醫療保護 受惠率
社會階層	社會福祉施設	社會福祉施設 및 收容者數
	社會的 移動	社會的 移動에 對한 態度
		主觀的 階層意識

B. 社會參與(6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社會參與의 增加	政治參與의 增加	大統領選舉 投票率
		國會議員選舉 投票率
		地方議員選舉 投票率
	宗教生活	宗教人口 比率
		宗教集會 參與度
	自願奉仕 參與	自願奉仕 參與率

8. 文化·餘暇部門(20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文化活動	文化生活用品 및 施 設의 普及	文化生活用品 所有家口比率
		圖書發行實績
		書籍保有家口比率
		教養書籍 購入人口比率 및 購入量
		公共 圖書館 座席數
		公共 圖書館 藏書數
		公共 圖書館 利用者數

韓國의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에 관한 研究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文化活動機會의 享有	讀書人口比率
		新聞購讀頻度
		新聞의 關心部門
		雜誌購讀率
		公演場 및 展示場 入場率
餘暇活動	公園과 休養地	都市公園面積
	餘暇施設水準	平均 旅行回數
		旅行地에서 不便한 點
	餘暇活用度	餘暇活用方法
		TV視聽時間
	餘暇活用に 對한 滿足度	TV嗜好 프로그램
		餘暇活用に 對한 滿足度 및 不滿要因
	餘暇活用費	家口當 餘暇活用費 支出率

9. 公安部門 (29個 指標)

關 心 領 域	細 部 關 心 領 域	個 別 指 標
犯罪로부터의 安全	報告된 主要犯罪 發生	犯罪 發生件數
		竊盜犯罪 發生件數
		強盜犯罪發生件數
		暴行·傷害 犯罪 發生件數
		強姦犯罪 發生件數
		殺人犯罪 發生件數
	報告된 犯罪者	主要 犯罪者數
		主要犯罪者 平均年齡
		主要犯罪 初犯率
		女性犯罪比率
	青少年犯罪	少年犯罪比率
	犯罪被害	主要犯罪 被害件數
		身體犯罪 被害者數
		財產犯罪 被害件數
		財產犯罪 被害額

關 心 領 域	細部關心領域	個 別 指 標
犯罪以外の 事故로 부터의 安全	交通事故	交通事故 發生件數指數
		自動車交通事故에 의한 死亡者數
		交通事故惹起逃避 檢舉率
	火災	火災發生件數當 死亡者數
		火災發生件數當 被害額
社會의 安寧度	遵法水準	自己評價 遵法水準
		他人評價 遵法水準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管掌하는 官公署에 對한 信賴度	主要犯罪 申告率
		現行犯罪의 未申告理由
保安能力	犯罪防止	地域別 警察官 1人當 人口數
	矯導能力	主要犯罪 再汎率
		矯導官 1人當 1日平均 收容人員
安寧感	犯罪(被害)에 對한	犯罪被害에 對한 두려움의 程度
	公安에 對한 滿足度	夜間步行에 對한 安全度

〈表Ⅱ-4〉 부문별 지표수의 변화(1979년, 1989년, 1991년)

사회적 관심부문	1979년 지표수	1989년 지표수	1991년 지표수
인구부문	24개	22개	22개
소득·소비부문	8개	15개	15개
고용·인력(노사) 부문	18개	45개	50개
교육부문	13개	28개	36개
보건(건강) 부문	15개	35개	35개
주택·환경부문	13개	42개	42개
사회부문	24개	22개	44개
*문화·여가부문		17개	20개
공안부문	10개	26개	29개

* 표의 문화·여가부문은 78년 지표작성시 포함되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표작성방법은

첫째, 각급 통계기관에서 생산되는 기존통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재분류·작성하는 방법과

둘째로 기존통계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관적 및 사회적 관심사 등에 대한 지표는 매년 부문별로 統計廳⁴²⁾에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용·작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指標項目作成에 있어서 社會의 多變化로 인한 인간의 욕구체계의 變化로 당시의 관심사가 指標作成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1978년과 1989년, 1991년에 작성 공표된 우리나라의 社會 指標體系를 보면 社會의 變化를 측정하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Ⅲ-4참조)

앞의 (表Ⅲ-3), (表Ⅲ-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指標體系의 變化를 살펴 보면 우선 社會의 關心部門에서 1978년에는 人口, 所得, 消費, 雇用과 人力, 教育, 保健, 住宅과 環境, 社會, 公安 등 8개 부문이었는데, 1989년의 社會指標部門은 앞의 8개部門外에 社會部門을 家族關係, 社會參與 등으로 분류하고, 文化, 餘暇部門을 社會的 關心部門으로 별도로 추가 9개의 部門으로 분류 數的인 變化를 보였다.⁴³⁾ 관심영역에 있어서 分化를 보인 분야도 雇傭 및 人力部門과 社會部門을 들 수 있는데, 1978년에는 雇傭·人力部門이라 하여 취업등의 客觀的인 經濟的 여건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비해 1989년에는 고용·노사부문이라는 部門으로 변경되어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細部的인 관심영역과 지표영역에서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 우리의 경제상태가 70년대의 量的인 팽창위주의 정책에서, 80년대에는 質的인 성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문에 있어서 1978년의 사회지표에서는 주요 부문별로 다시 구분하여 가족, 사회보장, 공적부조, 여가 등으로 나누어 지표구성을 하였다. 89년의 지표구성에는 사회부문에서 質的인 내용을 보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참여를 하나의 下位部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文化 및 餘暇部門을 별도의 관심부문으로 독립시켜 主觀的인 満足度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많은 變化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人間의 「삶의 질」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細部的인 사회관심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가 있었는데 특히 住宅, 環境, 雇傭, 勞使, 公安部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의 사회적 영역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社會政策的 要求가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삶의 질」指標의 活用方案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微視的 측정방법으로서의 「삶의 질」指標나 巨視的 측정방법으로서의 社會指標의 대두는 1970년대 中半이후로, 社會開發政策⁴⁴⁾에 눈을 돌리면서 이다.

이는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期間(1976~1980)을 통한 社會開發의 基盤造成에 이어, 第5次 經

42) 「韓國의 社會指標」 작성은 90년도까지는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에서 작성 발표해 왔으나, 91년도 부터는 調查統計局이 統計廳으로 승격됨에 따라 統計廳에서 社會統計調查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韓國의 社會指標」도 이곳에서 발간되고 있다.

43)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 1989, 1991년편 참조.

44) 여기서 말하는 社會開發은 生産的인 概念보다는 分配的인 概念이다.

濟社會發展5個年計劃期間의 社會開發計劃部門의 效率인 계획수립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회통계를 정비하고 社會指標을 작성해야 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⁴⁵⁾ 그래서 1979년도에 經濟企劃院에서 「韓國의 社會指標」가 공식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⁶⁾

政府는 社會指標을 定義하여 “社會的 狀態를 總體的이고 集約的으로 나타내어 生活의 量的 및 質的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케 하는 尺度”라고 하였다. 또한 機能으로서 ① 국민생활의 수준 측정, ②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③ 사회변화의 예측 및 ④ 사회개발정책의 성과측정 등을 들고 있다.⁴⁷⁾ 이에 따라 大韓統計協會는 指標體系를 ① 人口, ② 所得·消費, ③ 雇傭, ④ 敎育, ⑤ 保健, ⑥ 住宅·環境, ⑦ 社會, ⑧ 文化·餘暇, ⑨ 公安 등 9개 部門으로 구분하고⁴⁸⁾ 91년도에는 272개의 「社會指標」를 공표했다.

「삶의 質」 내지는 국민생활의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의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는 1977년부터 실시된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1991년의 「韓國의 社會指標」를 보면 主觀的 指標 들로는 「所得·消費」部門의 개별지표로서 통계표 2-5의 (소득 十分位別 계층 귀속의식)과, 통계표 2-9의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와 「雇傭·勞使部門」의 통계표 3-24의 (일(職務) 만족도), (임금 만족도), (노동시간 만족도), (직장의 장래성 만족도), (작업환경 만족도), (직장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통계표 3-25의 (직무선택 요인)과 「敎育部門」의 통계표 4-3의 (가구주의 자녀기대 敎育수준)과 「保健部門」의 통계표 5-21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통계표 5-22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이유), 「住宅環境部門」의 통계표 6-19의 (인접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통계표 6-20의 (현 거주지 선택이유), 통계표 6-21의 (현거주지역 만족도), 통계표 6-23의 (주요하천 오염도), (주요해수 오염도),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통계표 6-22의 (주관적 공해도), 「社會部門」의 통계표 7-18의 (주관적 계층의식), 「文化·餘暇部門」의 통계표 8-13의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통계표 8-15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요인), 「公安部門」의 통계표 9-12의 (현행법령의 미신고이유), 통계표 9-13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통계표 9-14의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등 26개의 項目이 들어 있다.

이들 主觀的 指標의 평가는 5點 總和評級尺度(5points sum-mated rating scale)로 滿足·不滿足·信賴·不信賴 및 好轉 惡化를 強度別로 묻고 「有」의 경우 다시 公害의 종류를 묻고 있다. 통계표 4-1의 「敎育 機會」에 있어서 子·女에 대한 희망敎育정도는 家口주의 敎育수준과 子·女의 性別로 子·女들에 대한 희망敎育수준을 묻고 있으며, 「社會部門」의 통계표 7-9의 (老後準備方

45) 尹鐘周, “韓國社會의 社會指標開發을 위한 基礎研究” 「福祉社會의 本質과 具現에 관한 研究」(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3), pp. 347~348.

46)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79.

47) 大韓統計協會, 「韓國의 社會指標」, 1991, pp. 18~19.

48) 88년까지는 社會指標部門을 8개部門으로 구분했다가 89년부터 社會部門에 포함된 文化, 餘暇部門을 독립 9개 部門으로 했다. 大韓統計協會, 前掲書, pp. 32~33.

法)에 대한 태도의 경우는 연령별 및 성별·지역별로 依支對象으로서의 子·女의 종류 自主(不依支) 및 사회복지제도 내지 시설에 대한 의지의 類目으로 답을 묻고 있다. 「雇傭·勞使」部門의 통계표 3-25의 (직업선택의 요인)은 성별, 교육별로 그 답을 명예, 안정성, 수입, 보람 및 발전성 등의 비슷한 항목으로 구하고 있다.

이러한 主觀的 指標는 특정한 하위관심영역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태도를 밝혀 국민생활에 있어서 福祉感의 정도를 주관적인 의식수준에서 捕捉한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매우 크나 주관지표의 항목에 따라서는 그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 예로서 職業選擇의 요인의 경우 80년, 83년, 88년, 91년 등의 指標值(全國的 水準)는 80년 수입때문에 48.4%, 안정성 26.7%, 발전성 13.7%, 보람 6.6%, 명예 4.6%의 순위이며, 83년에는 안정성 39.3%, 수입 25.0%, 23.0%, 발전성 19.6%, 보람 14.0%, 명예 4.1%, 88년에는 안정성 43.1%, 수입 25.0%, 발전성 14.5%, 보람 12.8%, 명예 4.3%, 91년에는 안정성 37.2%, 수입 29.7%, 보람 15.1%, 발전성 14.3%, 명예 3.1%로 나타났다.⁴⁹⁾

이는 취업인구의 취업선택 이유에 대한 실태파악이 社會指標의 機能的 次元에서 볼 때 무엇을 위한 지표항목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이 지표는 국민의 복지수준 내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므로 이 항목에 대한 답의 분포에서 政府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강구를 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지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의식을 묻고 있는 지표 즉 예를 들면 주택·환경부문의 개별지표로서 인근도로 및 교통시설 만족도, 주요하천 오염도, 주요해수 오염도, 주관적 공해도 등이 미흡하지만 개발·활용되고 있다.

특히 公安部門의 경우 89년의 사회지표에 개별지표로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개의 지표항목을 선정하였으나 91년에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측정을 추가하고 있어 정부당국에서도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삶의 질」지표 활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다.

IV. 韓國의 「삶의 질」指標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問題點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삶의 질」지표는 그 特性에 있어서 ① 사회적 관심접근적(social concern approach)인 Top-Down 방식이며, ② 기존의 統計系列의 가용도를 중시하고 있고, ③ 지표의 활용목적에 있어서 사회계획(social planning)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지표이다. 또한 「韓國의 社會指標」체계는 ① UN의 「社會人口統計體系(SSDS)」의 영역구분을 따르고 있으며, ② SSDS의 지표체계인 ① 人口, ② 가족 및 가구, ③ 사회계층 및 사회이동성, ④ 소득·소비 및

49) 大韓統計協會, 「韓國의 社會指標」, 1991, p. 144.

저축의 분포, ⑤ 주거환경, ⑥ 시간과 여가이용, ⑦ 사회보장과 복지시설, ⑧ 교육, ⑨ 경제활동, ⑩ 보건 및 보건서비스, ⑪ 공안 등 11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大韓統計協會가 발행하는 「韓國의 社會指標」에서는 ① 인구, ② 소득·소비, ③ 고용·노사, ④ 교육, ⑤ 보건, ⑥ 주택·환경, ⑦ 사회, ⑧ 문화·여가, ⑨ 공안 등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표항목에 있어서는 ① 고용·노사부문의 지표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②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각 영역의 주관적 지표도 핵심을 빚나가는 일면을 보이고 있으며 또 영역에 따라서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구성에 나타난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항목의 선정에 있어서의 기존 통계 및 통계계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사회관심적 접근방법에 의한 지표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계획적 지표항목을 선정해야 하는 압력과 가용통계자료의 미비점이 가중됨으로써 영역간 및 하위영역(구분)간의 항목배분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⁵⁰⁾

2. 改善方案

총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韓國의 社會指標」는 그 公表가 12년으로 비교적 일천하지만 지표작성에 있어서 선진외국의 지표들이 특성과 체계구성을 참작하여 경제기획원과 KDI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사회지표로서 체계성과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可用資料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지표체계에 따른 지표항목의 재시를 폭넓게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삶의 질」지표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표체계의 재조정 및 추가영역의 설정

둘째, 지표항목의 재조정 및 각 영역의 주관적 지표항목의 추가

셋째, 가용통계의 개발과 확대

네째, 指標值의 時系列的 비교 및 지수화에 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는 ① 사회지표는 인간의 복지와 만족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삶의 질」 측면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⁵¹⁾ ② 「삶의 질」지표를 지역공동체가 요구하는 관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표개발에 광범한 참여가 있어야 하고, ③ 지표개발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와 정책형성자의 요구를 조화시키면서 產出測定을 기술해야만 할 것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지표개발에 있어서는 ① 지표체계의 재조정, ② 지표항목의 조정, ③ 가용통계의 개발 및 확충 등이 필요한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 尹鍾周, 前掲書, pp. 357~362.

51) 社會指標를 이해하고認識하는데 있어서 技術的인 面보다는 政治的인 面을 強調하는 意見도 있는데 代表的인 學者로서는 P. J. Henriot, "Political Implication of Social Indicators", (Chicago, Illinois, september, 1971).

表Ⅳ-1) QOL의 體系와 開發指標의 體系圖

本源의 價値	基本的的社會的 關心事項	下位關心事項	次下位關心事項	開發指標의 構成
1. 人間다운 生活	1. 만족할 住居 生活 2. 만족할 社會 生活	① 만족할 生活 環境 ② 만족할 住宅 空間 ③ 身體安全의 社會的 保障 ④ 參與 ⑤ 子女教育의 成就	가. 道路의 정비 나. 交通의 便利 다. 公署로 부터 해방 라. 上水道등 환경시설의 完 全한 정비 가. 편리한 주택 규모와 시설 나. 維持費를 高 려한 適正規模와 시설 가. 職場收入과 支出의 均衡 나. 實業保險과 職業安定制度 다. 將來의 希望 가. 制度의 行政的 保障 나. 正當한 刑事治安 다. 가. 被選舉權, 選舉權의 平等과 公平한 機會의 保障 나. 가. 成功된 進學과 正當한 教育費 負擔 나. 卒業後의 社會의 收容	○ 道路率에 關한 指標 (住宅面積對道路面積) ○ 交通소통指標 ○ 人口 1,000名當 自動車 保有台數 ○ 버스 1台當 1日 실제수용승객수 ○ 時間當 通過車輛等 ○ 各種 環境指標(危險 及 汚染指數) ○ 各種 環境 及 시설에 關한 指標(人口 1,000名當 〇〇의 上水量等) ○ 所得規模(投資稼得額)對 住宅건축費에 關한 指標(또는 每人當 可處分所得對 住居費支出액: 都市 及 農村別) ○ 就業人口當 平均每月收入 對 支出額(均衡指數) ○ 職能別 平均저축액 ○ 바람직한 저축率 現在의 저축率 ○ 退職金支給, 保險加入率과 支給率 等 制度의 實際成果를 可測하는 指標 ○ 上向的 階層移動과 轉職率을 可測할 指標 ○ 制度 及 그 운영의 실제成果를 可測할 指標 ○ 裁判의 公正性을 可測할 指標(代用指標도 可함, 例: 刑事補償費의 支給率) ○ 制度의 實際운영과 成果를 可測할 指標 ○ 每家族當 可處分所得 對 教育비 支給액의 指標 ○ 各級 學校卒業生數 對 就學者數를 比較한 指標 ○ 바람직한 進學率, 就業率과 現存狀態의 比較指標

1) 指標體系의 재조정, 91년도의 「韓國의 社會指標」 체계를 보면 79년의 「韓國의 社會指標」 체계보다 많은 改善을 보았다. 한 예로서 79년도 지표에는 「社會部門」에 「文化·餘暇部門」을 포함시켰었는데 細部的이고 「삶의 질」의인 지표항목을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文化·餘暇部門」을 분리시켜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예를 들면 「國民時間利用類型」같은 지표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지표항목의 조정에 있어서는 특정분야의 지표항목이 數個領域에 분산되고 있는 사실은 영역의 미분화 및 특성 하위영역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예로 人口部門의 ① 인구수, ② 성장율, ③ 인구동태 제율 등이, 보건영역의(영아사망율)과 (혼인연령)은 사회부문의 혼인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公安部門에 있어서의 犯罪에 대한 불만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등 주관적 지표는 그 항목이 「삶의 質」과 직결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의 사회통계조사 항목의 재 선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可用統計의 개발 및 확충: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에 사용되는 가용통계 대부분이 정부통계, 일반통계 기타 행정통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통계의 지역적 규모 및 그 완전성과 정확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각 영역내에서의 체계구성상 필수적 지표항목과 개발이 요구되는 항목을 위하여 가용통계자료의 색출·검토·기존통계의 항목보안 나아가서 새로운 통계수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을 綜合化 할 수 있는 것으로 金永燮 教授는 우리나라 國民의 「삶의 質」의 체계와 개발지표 체계간의 관계를 例示하고 있는데 내용은 (表Ⅳ-1)과 같다.⁵²⁾

V. 結 論

우리나라에서 사회지표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는 社會開發에 접근하고자하는 노력은 20여년전부터 학계 전문기관 등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社會問題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항을 장기간에 걸쳐 측정하고 이를 지표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技術的 문제나 그 제도화가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삶의 質」지표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 측정방법에 어려움이 많다. 이들에 관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삶의 質」의 지표가 정책결정의 合理性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을 比較·把握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므로 社會統計의 장기적 작성과, 장기추세를 전망할 수 있는 時系列的 分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지표의 체계화와 아울러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켜 본질적으로 「삶의 質」의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 본원적 가치인 「삶의 質」의 문제는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多學向的 研究(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하므로 지표의 각 부문은 그 분야의 학문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2) 金永燮, 「社會開發의 政策手段으로서의 開發指標에 관한 研究」, 環境論叢, (서울대 環境大學院, 1975), (제2권 1호), pp. 144~145.

Summary

A Study on the Use of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Dong-Shik Kang

It is in the mid 1970's that our nation began to b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life. This is the result of the changes in the value system accelerated by the material affluence, brought about by the economic growth in the 60's and the early 70's. GNP,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economic growth or production, cannot be a measure of social development or human progress. For this reason,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has become on the rise as a supplementary indicators for GNP.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 is now being used extensively in the soci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various studies of it.

This thesis ai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by setting out and solving these problems.